광주유니버시아드서 불교문화 만끽을…

광주불교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중 불교관 운영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 증심사 주지)는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석하는 선수와 임원들을 위한 불교종교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각국 대표단을 위한 사찰음식 만찬과 행사홍보를 위해 광주시내 사찰 100여 곳에 현수막을 걸고, 대회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수촌 내에 들어설 불교종교관은 전체 20여 평으로 선수와 임원들이 편하게 종교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입촌식이 시작되는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22일간 운영된다.

운영은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과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자비신행회, 전통등만등회, 빛고을나눔나무와 공동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은 선수와 임원들을 위한 명상과 체험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구체적 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예불의식과 방문자를 위한 사찰 예절 안내와 명상프로그램, 다도 및 다식, 지화연꽃 만들기, 전통한지등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단주만들기 등이다.

행사를 진행하는 광주불교연합회 문영배 기획팀장은 "조직위원회측의 요청으로 대규모의 행사는 개최할 수 없고, 순수하게 선수와 임원들이 편안히 종교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가 있어, 소규모의 한국체험 프로그램과 참배와 명상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광주지역 중요사찰과 지점에 행사홍보 현수막을 걸어, 대회가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수촌 내 위치, 22일간 운영
선수 명상 · 심리치료 프로 진행
전통지등 · 연등만들기 등도 마련



지난 2009년 광주불교사암연합회가 광주시청에서 개최한 유치기원대법회 모습.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불교계는 적극 동참해 불법홍포에도 나선다.

종교관은 불교, 이슬람, 천주교, 기독교 등 4곳이 운영된다. 7월중에 개최되는 각 나라 대표단을 위한 사찰음식 만찬도 눈길을 끈다. 증심사와 빛고을자연음식체험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행사는 증심사 마당에 사찰음식으로 외국 대표단에게 만찬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은 6월 16일 종합예행연습을 통해 숙소 배정, 등록, 부대시설 이용 등 선수촌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6월 23일 미디어를 통해 선수촌 내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선수촌은 7월 17일까지 20개동, 2185채가 운영되며, 이곳에는 선수와 임원 1만2000여 명이 묵는다.

한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전세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종합 스포츠 대회로서 올림픽에 이어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대회는 전체 132개국에서 21개 종목, 선수 8천여 명과 임원 4천여 명 등 총 1만2000여명이 참여하는 역대 가장 많은 큰 규모로 진행된다.

개최 종목은 기계체조와 농구, 다이빙, 리듬체조, 배구, 수구, 수영, 유도, 육상, 축구, 탁구, 테니스, 펜싱의 13개 기본 종목에 개최도시 선택 종목 8개를 더해 총 21개이다. 광주는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온 배드민턴, 사격, 야구, 양궁, 조정, 태권도, 핸드볼, 골프를 선택했다. 특히 손연재가 출전하는 리듬체조와 불자 선수로 알려진 양학선이 출전하는 기계체조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제 1회 박물관학교 수료식 개최

"전통사찰에서 전통옷 만드는 과정을 배우게 되어 너무 행복했어요."

화엄사(주지 영관)에서 운영한 '제1회 화엄사 박물관학교 수료식'이 지난 10일 범음료에서 수강생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강좌는 6월 10일 개강을 해 전체 12주 과정으로 기초(바느질가방, 수납바구니, 핀쿠션, 두건, 천영염식), 연구반(허리치마, 디자인치마, 동군목둘레 저고리, 고무줄바지, 깃저고리), 심화1반(사목바지, 천연염색, 긴저고리), 심화2반(겹사폭바지, 겹저고리, 디자인두루마기)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한편 화엄사는 6월 14일 선재어린이법회와 문수학생회 창립 2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논산 금강대, '2020 금강 AGENDA' 선포

금강대(총장 한광수)는 6월 17일 장기적인 대학발전과 글로벌 명문사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2020 금강 AGENDA'를 선포했다. 이날 발표된 비전에 따르면 금강대는 학제개편으로 현 2개 학부 6개 학과 모집정원 145명에서, 4개 학부 10개 전공 모집정원 145명으로 개편했다. △불교문화학부는 불교학전공, 응용불교학전공 △사회과학부는 경영학전공, 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국제통상학부는 FTA시장전공, 중국통상전공, 미국통상전공, 일본통상전공 △정보과학부는 컴퓨터과학전공 등이다.

또한 '2020 금강 AGENDA'는 금강대가 세계적인 글로벌 문화 협력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전원 해외유학(해외 학점 취득), 자율과 융합(자율전공제), 질문과 창조(질문중심강의), 영어와 컴퓨터(졸업인증제), 독서와 체력(기숙사몰입교육), 장학과 인재발굴(전원장학제) 등으로 구성됐다.

한 총장은 "이번 학제개편과 2020 금강 AGENDA를 통해 질문중심 교육으로 미래창조형 인재를 배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새롭게 변화하는 금강대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제주 불교 구심점 될 서귀포불교회관 건립 된다

6월 8일 서귀포불교문화원 창립 8주년 법회서 논의… 동문회원 1500만원 모연도

제주 서귀포 지역 신행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서귀포불교회관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귀포불교문화원(이사장 도종)은 6월 8일 서귀포시 노블컨벤션에서 8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불교회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기념법회에서 윤봉택 서귀포시예총 회장은 "서귀포불교문화원의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위해 서귀포불교회관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며 "회관 내에 불교대학을 비롯해 각종 불교단체가 상주하면 불법홍포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산남지역 사찰 주지들의 동참과 더불어 서귀포불교대학이 배출한 1850명의 동문들에게 건립부지 구입을 위한 땅한평 보시운동과 우리절 대웅전 불사라는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7일 열린 서귀포불교대학 총동문회 제10회 한마음단합대회에서는 동문회원들이 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1500만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1000여 명은 모두 동참의사를 밝혔다.



6월 8일 서귀포시 노블컨벤션에서 열린 토론회 모습 제공=제주불교

한용운 서귀포불교문화원 원장은 "서귀포 불교대학 졸업생 증가 및 문화원 산하 동아리 활동공간 부족에 이어 연꽃 합창단까지 문화원 산하로 가입하며 신행공간이 더욱 필요하진 상황"이라며 불교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원장은 이어 "불교회관은 서귀포 지역의 상징이자,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불교메카로 꾸려야 한다"며 대중들의 협조와 동참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리산 선교사 별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의 근대문화재 지정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리산권시민단체협의회는 6월 15일 구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의 근대 문화재 지정 여부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김동필 부산대 교수의 사회로 김란기 문화유산대표, 이배근 국립생태원 박사, 윤여창 서울대 교수, 천득염 전남대 교수, 함한희 전북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의 문화재 지정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간담회 결과는 문화재청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리산 화엄사 등 지역 사찰들은 구례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의 문화재 등재 시도는 일부 개신교 단체의 무분별한 선교활동의 결과라며 민족성지이자 자연보존구역인 지리산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을 즉각 철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착한벗들, 마음담은 생활문화요리강좌 개설

지역 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사)착한벗들(대표 회일)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요리강좌 '2015 마음담은 생활문화요리'를 개최했다. 6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요리강좌는 지역 내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다각화와 시민들의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역 내 다문화가정을 위해 요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으나 대부분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가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이날 요리강좌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의 요리를 활용해 강좌의 강사로 나서거나 청소년들의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진행됐다.

착한벗들 관계자는 "2013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이해와 가사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번 요리강좌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사과정을 이수한 결혼이주여성들의 활동 무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요리학원,(사)자연음식문화원과 함께 오는 8월부터 교육청과 지역 내 요리 관련 단체나 동호회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요리체험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착한벗들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중도입국자녀(재혼을 통해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이 데려온 자녀)를 위한 한국어 및 사회문화 이해교실과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6월 20일부터는 청소년들의 다문화감수성 제고 전문 프로그램인 '꿈을찾아떠나는 마음여행'을 시작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